

200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동향분석실

I. 2009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

1. 개 관

2009년 상반기 고용동향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소로 경기침체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동반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에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08년 12월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여 왔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기가 심화되자 정부는 2009년도 일반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일자리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등 일자리 유지정책에 걸쳐 다양하게 추진됨으로써 고용동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4%p 하락한 -0.6%를 기록하였고,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40천 명 감소하였다. 연평균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음(-)으로 나타난 것은 1999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에 이어 세 번째이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상반기 대비 0.7%p 하락한 60.7%를 기록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은 0.5%p, 여성은 1.0%p 감소하여 여성 참가율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고용감소 및 실직자의 비경활 유입 증가가 남성에 비해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OECD 기준)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0.6%p 감소한 65.3%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0.4%p 감소한 반면, 여성은 0.9%p 감소하여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년	
						상반기 (1~6월)	상반기 (1~6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8,300 [1.5]	38,762 [1.2]	39,170 [1.1]	39,598 [1.1]	39,483 [1.1]	39,964 [1.2]
	경제활동인구	23,743 [1.4]	23,978 [1.0]	24,216 [1.0]	24,347 [0.5]	24,245 [0.6]	24,246 [0.0]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2,856 [1.3] (299)	23,151 [1.3] (295)	23,433 [1.2] (282)	23,577 [0.6] (145)	23,461 [0.8] (191)	23,321 [-0.6] (-140)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2.0 (74.6) (50.1)	61.9 (74.1) (50.3)	61.8 (74.0) (50.2)	61.5 (73.5) (50.0)	61.4 (73.5) (49.9)	60.7 (73.0) (48.9)
	고용률 (남성) (여성)	59.7 (71.6) (48.4)	59.7 (71.3) (48.8)	59.8 (71.3) (48.9)	59.5 (70.9) (48.7)	59.4 (70.8) (48.6)	58.4 (69.8) (47.4)
	실업자	887	827	783	769	784.0	926
	실업률 (남성) (여성)	3.7 (4.0) (3.4)	3.5 (3.8) (2.9)	3.2 (3.7) (2.6)	3.2 (3.6) (2.6)	3.2 (3.6) (2.7)	3.8 (4.3) (3.2)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4,557 [1.8]	14,784 [1.6]	14,954 [1.1]	15,251 [2.0]	15,239 [1.8]	15,718 [3.1]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6.3 (78.2) (54.5)	66.2 (77.8) (54.8)	66.2 (77.6) (54.8)	66.0 (77.3) (54.7)	66.0 (77.2) (54.7)	65.3 (76.8) (53.8)
	고용률 (남성) (여성)	63.7 (75.0) (52.5)	63.8 (74.7) (53.1)	63.9 (74.6) (53.2)	63.8 (74.4) (53.2)	63.7 (74.4) (53.1)	62.7 (73.4) (52.0)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여성의 감소 폭이 더 크다.

고용률은 2008년 상반기 대비 1.1%p 감소한 58.4%를 기록하였으며, 남성(-1.0%p)과 여성(-1.2%p) 모두 감소하였다.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인구의 고용률도 2008년 상반기 대비 1.0%p나 감소한 62.7%에 그쳤다. 실업자수는 2008년 상반기에 비해 142천 명 증가하여 926천 명에 이르렀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실업률은 2008년 상반기에 비해 0.6%p 증가하여 3.8%를 기록하였으며, 남성이 0.7%p 증가한 4.3%를 여성이 0.4%p 증가한 3.2%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는 예년의 추세와 비슷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사정의 악화로 실직자가 실업상태에 머무르기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08년 상반기보다 1.3%p나 상승한 3.1%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479천 명 증가한 15,718천 명을 기록했다.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2006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월별 증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에 증가세 둔화폭이 더 커진 후 2008년 12월부터는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는 2007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취업자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침체로 실직자의 일부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전락하지만 일부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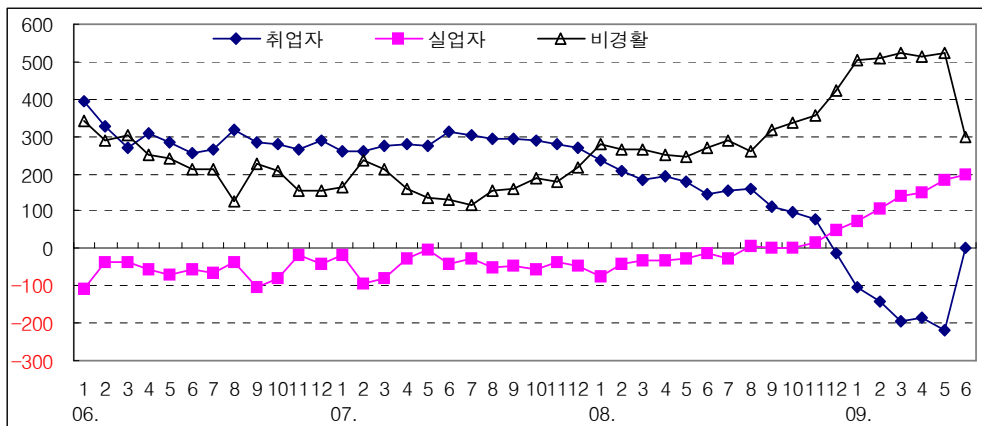
2. 핵심연령계층의 취업자 감소폭 증가

연령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2009년 상반기 중 30대의 취업감소 규모가 186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124천 명), 10대(31천 명), 40대(9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60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30대의 경우 여성 취업자 감소규모가 129천 명으로 남성 취업자 감소규모 71천 명에 비해 더 많아 경기침체의 충격이 30대 연령계층에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고용감소는 2008년 상반기에도 나타났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해당 연령계층의 취업자 감소폭이 더욱 증가하여 청년층의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대의 경우 1월을 정점으로 감소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에

[그림 1]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해 40대의 경우 2008년 상반기에는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54천 명 증가하였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9천 명이 감소하여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에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6월에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반전한 것은 주로 6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연령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2 참조). 특히 6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는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입에 기인하고 있다. 즉, 2009년 들어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6월 이전에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6월에 131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매월 200천 명 가량 증가해오던 비경제활동인구는 6월 86천 명 증가에 그쳐 대조를 보이고 있다. 6월에 60대 이상 취업자의 증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즉, 6월에 급증한 고령층의 일자리는 임시직(158천 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전년동월대비

<표 2> 성별·연령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체	23,461 (191)	23,321 (-140)	(-103)	(-142)	(-195)	(-187)	(-219)	(4)
15~19세	203 (-12)	172 (-31)	(-40)	(-24)	(-37)	(-32)	(-34)	(-19)
남성	88 (-9)	72 (-16)	(-15)	(-18)	(-23)	(-20)	(-10)	(-10)
여성	115 (-2)	100 (-15)	(-25)	(-7)	(-13)	(-12)	(-23)	(-9)
20~29세	3,921 (-85)	3,797 (-124)	(-200)	(-172)	(-162)	(-81)	(-78)	(-53)
남성	1,854 (-51)	1,803 (-51)	(-101)	(-103)	(-73)	(-20)	(1)	(-8)
여성	2,067 (-35)	1,994 (-73)	(-98)	(-68)	(-89)	(-62)	(-79)	(-44)
30~39세	6,034 (13)	5,848 (-186)	(-113)	(-167)	(-197)	(-229)	(-212)	(-199)
남성	3,799 (1)	3,750 (-50)	(-26)	(-9)	(-56)	(-71)	(-65)	(-71)
여성	2,235 (11)	2,098 (-136)	(-87)	(-157)	(-141)	(-159)	(-145)	(-129)
40~49세	6,515 (54)	6,506 (-9)	(28)	(25)	(-28)	(-19)	(-36)	(-25)
남성	3,863 (56)	3,855 (-8)	(28)	(8)	(-33)	(-20)	(-30)	(2)
여성	2,653 (-3)	2,651 (-2)	(0)	(16)	(5)	(1)	(-7)	(-28)
50~59세	4,228 (227)	4,402 (174)	(197)	(183)	(199)	(157)	(141)	(169)
남성	2,552 (121)	2,648 (96)	(84)	(100)	(110)	(101)	(83)	(100)
여성	1,676 (106)	1,754 (78)	(112)	(83)	(90)	(57)	(58)	(69)
60세 이상	2,560 (-5)	2,596 (36)	(25)	(13)	(31)	(17)	(0)	(131)
남성	1,487 (7)	1,515 (29)	(10)	(20)	(31)	(16)	(13)	(81)
여성	1,073 (-11)	1,081 (8)	(15)	(-7)	(0)	(0)	(-12)	(50)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48천개(2008년 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3. 자영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중심의 고용감소

2009년 상반기 취업자 변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상용직 근로자 증가세 유지와 자영자 및 임시·일용근로자의 두드러진 감소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 외환위기와 다소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상반기 고용동향을 보면 자영자는 2.0%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9.5% 감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0.8%, 13.3% 감소하였다. 1998년 하반기에는 자영자는 0.2% 증가하였고 상용직은 11.1% 감소하였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8.1%, 4.6% 감소하여 1998년 경기침체에 상용직과 일용직의 감소가 많은데 비해 자영자는 총량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에는 주로 자영자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용직은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1) 즉, 2009년 상반기의 취업자 감소는 비임금근로자(특히 자영자)와 임시·일용근로자에 집중되었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비임금근로자는 2009년 상반기 들어 감소폭이 더욱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64천 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자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2009년 상반기 자영자는 전년동기대비 202천 명이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도소매업의 자영자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및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23,270 (277)	23,461 (191)	23,321 (-140)
비임금근로자	7,418 (-123)	7,309 (-109)	7,045 (-264)
고용주	1,559 (-74)	1,538 (-21)	1,499 (-39)
자영자	4,458 (-13)	4,406 (-52)	4,204 (-202)
무급가족종사자	1,401 (-35)	1,365 (-36)	1,342 (-23)
임금근로자	15,852 (399)	16,152 (300)	16,276 (124)
상용	8,469 (363)	8,910 (441)	9,225 (315)
임시	5,200 (82)	5,103 (-98)	5,032 (-71)
일용	2,183 (-46)	2,139 (-44)	2,018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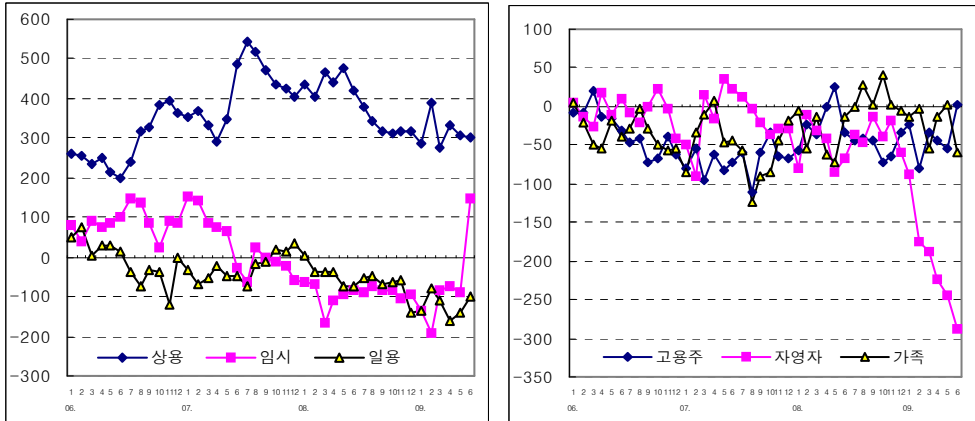
주: ()안은 전년 1~6월 대비 증감규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1) 이러한 특징은 2003년과 오히려 유사하다.

[그림 2]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임시직 근로자의 감소는 2008년 상반기부터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2007년 상반기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2009년 상반기의 경우 임시직 감소는 71천 명으로 2008년의 감소폭 98천 명에 다소 미치지 못한데 이는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실시로 6월에 임시직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2009년 상반기에 일용직은 121천 명이 감소하여 2008년 상반기(44천 명 감소)와 2007년 상반기(46천 명 감소)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가 지속되어 왔으나 상용직 근로자가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12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종사상 지위별 고용동향을 보면 2009년 상반기 취업자는 총 140천 명이 감소했는데 여성은 141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1천 명이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증가세(261천 명 증가)가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자영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여성 자영자의 감소 규모는 2009년 1월 이후 감소규모가 확대되어 2009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18천 명이 감소하였다(표 4 참조). 특히 여성 자영자는 소규모 개인서비스업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생계의 최일선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속기간을 이용하여 채용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2009년 상반기 중 1년 이내에 신규로 취업한 임금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증가했다. 신규채용자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일용근로자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규모로 감소추세를 이어간 반면, 임시근로자는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2009년 상반기에 1년 이상 근속한 임금

<표 4> 성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23,270 (277)	23,461 (191)	23,321 (-140)
남성	소 계	13,517 (152)	13,642 (125)	13,643 (1)
	임금근로자	9,141 (230)	9,301 (160)	9,418 (117)
	상용	5,708 (177)	5,981 (273)	6,241 (261)
	임시	2,240 (6)	2,169 (-71)	2,094 (-76)
	일용	1,193 (47)	1,152 (-42)	1,083 (-68)
	비임금근로자	4,376 (-77)	4,341 (-35)	4,224 (-116)
	고용주	1,219 (-84)	1,190 (-29)	1,158 (-32)
	자영자	2,992 (-5)	2,981 (-11)	2,896 (-84)
	무급가족종사자	165 (12)	170 (5)	170 (0)
여성	소 계	9,753 (125)	9,819 (66)	9,678 (-141)
	임금근로자	6,711 (169)	6,850 (140)	6,857 (7)
	상용	2,761 (186)	2,929 (169)	2,984 (55)
	임시	2,960 (75)	2,934 (-26)	2,939 (5)
	일용	990 (-92)	988 (-2)	935 (-53)
	비임금근로자	3,043 (-45)	2,969 (-74)	2,821 (-148)
	고용주	339 (10)	348 (9)	341 (-7)
	자영자	1,467 (-8)	1,426 (-41)	1,308 (-118)
	무급가족종사자	1,236 (-47)	1,195 (-41)	1,171 (-24)

주: ()안은 전년 1~6월 대비 증감규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5> 근속년수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및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6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1년 미만	임금근로자	5,827 (226)	5,922 (95)	5,707 (-215)	5,636 (-71)
	상용	1,283 (71)	1,403 (120)	1,357 (-46)	1,318 (-39)
	임시	2,577 (109)	2,564 (-12)	2,454 (-111)	2,503 (49)
	일용	1,967 (46)	1,954 (-13)	1,896 (-58)	1,814 (-82)
1년 이상	임금근로자	9,626 (122)	9,930 (304)	10,445 (515)	10,640 (195)
	상용	6,822 (165)	7,066 (243)	7,553 (487)	7,907 (354)
	임시	2,542 (-30)	2,636 (94)	2,649 (14)	2,529 (-120)
	일용	262 (-13)	229 (-33)	243 (14)	204 (-39)

주: ()안은 전년 1~6월 대비 증감규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근로자 중 상용직은 2008년 상반기 대비 354천 명이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의 감소세가 매우 커 195천 명 증가에 그쳤다.

4. 전반적인 일자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세 유지

2009년 상반기 고용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140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세(316천 명 증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용직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남성 근로자의 상용직 일자리는 2008년 273천개, 2009년 상반기 261천개 증가함으로써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 상용직 일자리는 2008년 전년동기대비 168천개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은 55천개 증가에 불과해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상용직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증가세가 크게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55천 명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상용직 근로자수는 2009년 상반기에 28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의 증가규모(2천 명)에 비해 26천 명이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의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동기의 증가규모인 69천 명에 비해 42천 명이 감소한 2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259천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의 증가규모에 비해 88천 명이 감소한 것이다.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의 증가세 하락이 두드러졌다(부표 2 참조)

2009년 상반기 상용직 일자리 변동의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441천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363천 명)에서 나타났다. 그런

<표 6>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8,469 (363)	8,910 (441)	9,225 (316)
성별	남성	5,078 (177)	5,980 (273)	6,241 (261)
	여성	2,761 (186)	2,929 (168)	2,984 (55)
직종별	관리자	321 (35)	319 (-2)	327 (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417 (140)	2,685 (268)	2,740 (55)
	사무종사자	2,543 (13)	2,670 (127)	2,771 (101)
	서비스종사자	338 (11)	384 (46)	430 (47)
	판매종사자	389 (46)	381 (-8)	390 (9)
	농림어업종사자	13 (3)	13 (0)	13 (-0)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636 (30)	695 (59)	732 (3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34 (8)	1,175 (-58)	1,230 (55)
	단순노무종사자	579 (78)	588 (9)	592 (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7> 상용직 근로자의 기업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8,469 (363)	8,910 (441)	9,225 (316)
100인 미만	소 계	5,527 (365)	5,890 (363)	6,084 (194)
	1~4인	499 (88)	542 (43)	555 (13)
	5~9인	929 (72)	1,005 (76)	1,058 (53)
	10~29인	1,868 (54)	2,012 (144)	2,112 (100)
	30~99인	2,231 (151)	2,332 (101)	2,359 (28)
100인 이상	소 계	2,942 (-2)	3,020 (78)	3,141 (122)
	100~299인	1,271 (52)	1,316 (45)	1,357 (41)
	300인 이상	1,671 (-54)	1,704 (33)	1,784 (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데 2009년 상반기에는 100인 이상,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이 크다. 300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수의 변동을 보면 2007년 상반기에는 54천 명이 감소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는 33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80천 명이 증가하여 이전의 동향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표 7 참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상용직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상용직 일자리는 7천개 감소한 반면, 남성의 상용직 일자리는 87천개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300인 이상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사업개인공공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표 8>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상용직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1,671 (-54)	1,704 (33)	1,784 (80)
건설업	30 (-12)	41 (11)	54 (13)
제조업	699 (-41)	660 (-39)	622 (-39)
서비스업	913 (-6)	974 (60)	1,078 (1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8 (-3)	67 (-11)	65 (-2)
사업개인공공 등	569 (-5)	637 (69)	743 (10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8 (-5)	88 (19)	141 (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4 (-5)	275 (21)	306 (31)
기타	246 (5)	275 (28)	296 (21)
운수통신금융 등	266 (3)	269 (3)	270 (1)
기타	29 (5)	29 (0)	31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났다(표 8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2009년 상반기 중 상용직 근로자가 예년과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효과, 경기침체 국면에서 임시·일용직의 해소로 상용직 인력조정의 필요성 감소 등을 지적할 수 있다.

5.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건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높아

2009년 상반기 사라진 일자리는 140천개이며, 이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 제조업의 실질GDP성장률은 -10.6%로 전년동기대비 -19.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는 157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일자리수는 전년동기대비 78천개가 줄어들었으며,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96천개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26천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8천개)에서의 일자리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 참조).

전반적인 일자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88천개, 146천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일자리

<표 9>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23,270 (277)	23,461 (191)	23,321 (-140)
건설업	1,851 (39)	1,817 (-34)	1,739 (-78)
제조업	4,029 (-46)	4,003 (-26)	3,846 (-157)
서비스업	15,616 (315)	15,912 (297)	16,008 (9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25 (-59)	5,687 (-38)	5,561 (-126)
사업개인공공 등	7,233 (334)	7,512 (279)	7,801 (289)
운수통신금융 등	2,657 (41)	2,713 (56)	2,646 (-67)
기타	1,774 (-32)	1,729 (-46)	1,728 (-1)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사업·개인·공공 등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E),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포함함.

운수통신금융 등은 운수업(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0> 산업별 고용형태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전 체	23,270 (277)	23,461 (191)	23,321 (-140)
	임금근로자	15,852 (399)	16,152 (300)	16,276 (124)
	상용	8,469 (363)	8,910 (441)	9,225 (315)
	임시·일용직	7,383 (36)	7,242 (-141)	7,050 (-191)
	비임금근로자	7,418 (-122)	7,309 (-109)	7,045 (-264)
건설업	소 계	1,851 (39)	1,817 (-34)	1,739 (-78)
	임금근로자	1,414 (78)	1,422 (8)	1,385 (-37)
	상용	426 (33)	495 (69)	522 (27)
	임시·일용직	988 (45)	927 (-61)	863 (-64)
	비임금근로자	437 (-39)	395 (-42)	354 (-41)
제조업	소 계	4,029 (-46)	4,003 (-26)	3,846 (-157)
	임금근로자	3,437 (-32)	3,396 (-41)	3,294 (-102)
	상용	2,363 (58)	2,365 (2)	2,393 (28)
	임시·일용직	1,074 (-90)	1,031 (-44)	901 (-130)
	비임금근로자	592 (-14)	607 (15)	552 (-55)
서비스업	소 계	15,615 (315)	15,912 (297)	16,008 (96)
	임금근로자	10,735 (335)	11,057 (322)	11,306 (249)
	상용	5,579 (258)	5,926 (347)	6,186 (259)
	임시·일용직	5,156 (76)	5,131 (-25)	5,120 (-11)
	비임금근로자	4,880 (-20)	4,855 (-25)	4,702 (-153)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소 계	5,725 (-59)	5,687 (-38)	5,561 (-126)
	임금근로자	3,077 (54)	3,088 (11)	3,045 (-43)
	상용	835 (61)	907 (72)	915 (8)
	임시·일용직	2,242 (-7)	2,181 (-61)	2,130 (-51)
	비임금근로자	2,648 (-114)	2,599 (-49)	2,516 (-83)
금융 및 보험업	소 계	792 (6)	823 (32)	764 (-59)
	임금근로자	740 (8)	778 (38)	734 (-45)
	상용	439 (-12)	469 (30)	469 (1)
	임시·일용직	301 (20)	310 (8)	264 (-45)
	비임금근로자	52 (-1)	45 (-7)	31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 계	715 (49)	810 (94)	956 (146)
	임금근로자	658 (49)	748 (90)	885 (137)
	상용	495 (51)	559 (64)	620 (61)
	임시·일용직	163 (-2)	189 (26)	265 (77)
	비임금근로자	58 (-0)	62 (4)	71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 계	1,277 (75)	1,290 (13)	1,212 (-78)
	임금근로자	643 (35)	659 (16)	636 (-23)
	상용	257 (22)	264 (7)	266 (1)
	임시·일용직	386 (13)	395 (9)	370 (-25)
	비임금근로자	634 (40)	630 (-3)	576 (-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증가세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직접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판단된다.²⁾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에서 일자리는 2008년 6월 전년동월대비 88천개 증가한 것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2009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68천개나 증가하였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종(241천 명), 임시직(282천 명), 60세 이상 고령층(148천 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 동안 고용변동이 컸던 산업의 일자리 구조를 들여다보면, 제조업은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컸던 반면, 서비스업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가 일자리 부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15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이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30천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사라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30~40대 연령층의 여성(74천 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는 오히려 2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상용직 일자리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48천 명)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96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세는 2008년 1.9%에서 2009년 0.6%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카드대란 시기였던 2003년 서비스업 일자리가 28천개 증가한 이래 가장 저조한 수치이다. 특히 도소매업(126천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8천개), 금융보험업(59천개)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부진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비임금근로자(-153천 명)의 일자리 부진, 특히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137천 명이 상반기 동안 휴폐업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 100인 미만 사업장, 특히 영세사업장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폭 확대

2009년 상반기 일자리 부진은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405천개(1~4인 360천개, 5~9인 45천개)나 되는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세사업장에서의 큰 폭의 고용감소는 임시·일용직 근로자(216천 명)와 자영업자(202천 명)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236천개) 부문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2)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실업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5만 명에게 생활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을 투입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9년 상반기 동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30~40대 연령층에서 일자리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 일자리 감소폭보다 남성근로자의 일자리 감소폭이 컸으며, 자영업자(192천 명)와 임시·일용직 근로자(126천 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표 11> 기업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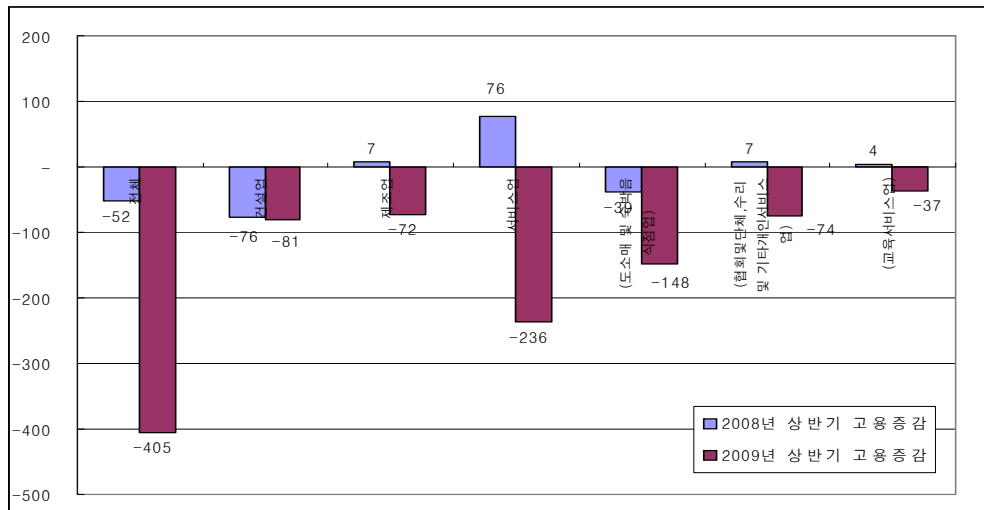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23,270 (277)	23,461 (191)	23,321 (-140)
100인 미만	소 계	19,872 (331)	20,010 (138)	19,750 (-261)
	1~4인	10,002 (60)	9,916 (-87)	9,555 (-360)
	5~9인	3,176 (107)	3,210 (35)	3,165 (-45)
	10~29인	3,581 (44)	3,684 (103)	3,787 (103)
	30~99인	3,113 (120)	3,201 (88)	3,242 (41)
100인 이상	소 계	3,398 (-54)	3,451 (53)	3,571 (120)
	100~299인	1,567 (40)	1,585 (18)	1,608 (23)
	300인 이상	1,831 (-94)	1,866 (35)	1,963 (9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업별 고용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2> 10인 미만, 30~40대 연령층의 일자리 변화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6,613 (-96)	6,496 (-117)	6,158 (-338)
성별	남성	3,690 (-51)	3,653 (-37)	3,458 (-195)
	여성	2,923 (-45)	2,843 (-80)	2,700 (-14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3008 (66)	3038 (30)	2975 (63)
	상용직	778 (62)	864 (86)	926 (63)
	임시·일용직	2,231 (4)	2,174 (-56)	2,049 (-126)
	비임금근로자	3605 (-163)	3458 (-147)	3183 (-274)
	고용주	967 (-44)	889 (-78)	854 (-35)
	자영업자	1,992 (-83)	1,948 (-44)	1,756 (-192)
	무급가족종사자	646 (-36)	621 (-25)	573 (-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3> 300인 이상 규모의 일자리 변화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1,831 (-94)	1,866 (35)	1,963 (97)
성별	남성	1,329 (-69)	1,349 (20)	1,440 (91)
	여성	502 (-26)	517 (15)	523 (6)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1,671 (-54)	1,704 (33)	1,784 (80)
	임시직	136 (-28)	140 (4)	160 (20)
	일용직	22 (-13)	21 (-1)	19 (-3)
	무급가족종사자	2 (-0)	1 (-1)	-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년동기대비 120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97천개)에서 비롯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상용직 중심의 괜찮은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상용직 80천개, 임시·일용직 18천개 증가).

II. 2009년 하반기 전망

1. 하반기 경제는 미세한 회복세를 보일 듯

2009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내외수요 관련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3.4%)에서 벗어나 전년 하반기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³⁾ 하반기 경기는 세계교역 여건개선과 가계의 소비심리 호전, 공공부문의 SOC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2009년 연간 -1.6% 성장에서 2010년에는 3.6%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소비 부문은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자산가격의 상승, 가계심리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하반기에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낮은 가동률 수준 및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부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그 감소폭은 상반기 -20.9%에서 하반기 -9.1%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투자 증가율은 비록 주거용 및 비주거용 등의 건물건설 부문에서의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SOC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1.9%)보다 0.6%포인트 증가한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세계교역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상반기 -9.2%에서 하반기 3.7%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경제성장 전망

(전기대비, %)

	2008	2009p				2010p	
	연간	1/4	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성장률	2.2	0.1 (-4.2)	2.3 (-2.5)	1.2 (-3.4)	0.3 (0.2)	-1.6	3.6
민간소비	0.9	0.5 (-4.4)	2.8 (-1.6)	1.6 (-3.0)	-0.2 (0.3)	-1.4	2.6
설비투자	-2.0	-11.2 (-23.5)	6.8 (-18.5)	-2.2 (-20.9)	2.9 (-9.1)	-15.1	13.6
건설투자	-2.1	5.2 (1.6)	0.2 (2.1)	2.7 (1.9)	-0.6 (2.5)	2.2	2.1
상품수출	4.1	-3.4 (-14.1)	14.4 (-4.6)	5.5 (-9.2)	0.3 (3.7)	-2.8	8.5
상품수입	4.6	-6.2 (-17.4)	7.8 (-14.1)	0.8 (-15.7)	6.0 (2.5)	-6.8	9.8

주: 1) 연간 및 ()안은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기준 상·하반 전기비는 각 분기 증가율의 평균.

3) 2009년 1/4분기는 잠정치 기준.

4)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3) 거시경제 전망 부분은 한국은행(2009년 7월 10일자)의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많이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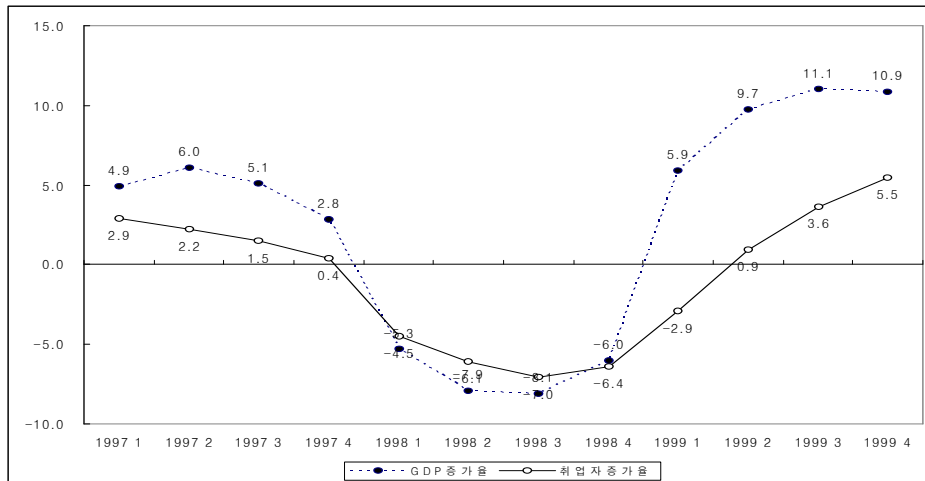
2. 경기회복기의 노동시장은 경기보다 느리게 진행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경기변화에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장의 경기후행성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도 적용되며, 특히 경기회복기에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4]는 외환위기 당시의 GDP와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GDP는 경기가 저점을 기록한 1998년 3/4분기 이후 4/4분기에 소폭 증가한 후 1999년 1/4분기에 급격하게 회복되었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경기회복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하여 1999년 2/4분기에 이르러서야 양(+)의 증가율로 돌아섰다. 이러한 예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경기는 2003년 2/4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후 3/4분기에 소폭 증가를 거쳐 4/4분기에 급격히 회복되었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이보다 1분기 정도 늦은 2004년 1/4분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 회복기로 접어들더라도 고용은 경기회복 속도와 궤를 같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는 노동수요의 변화가 경기에 비탄력적임 보여주는 것으로 통상 호경기에는 과소고용을, 불경기에는 과잉고용 상태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경기침체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더라도 기업은 신규채용보다는 근로시간 증대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며 산업별로 경기회복의 편차가 있고, 경기회복의 체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용증대가 경기회복만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에 미세하게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더라도 고용증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추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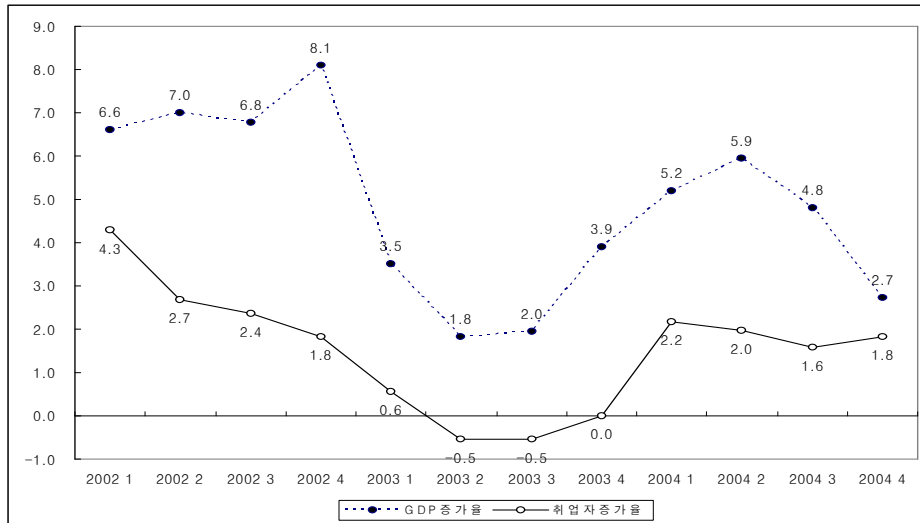
[그림 4] 외환위기 당시 GDP, 취업자 증가율

(단위: 천 명, 십억 원)



[그림 5] 2003년 카드대란 당시 GDP, 취업자 증가율

(단위: 천 명,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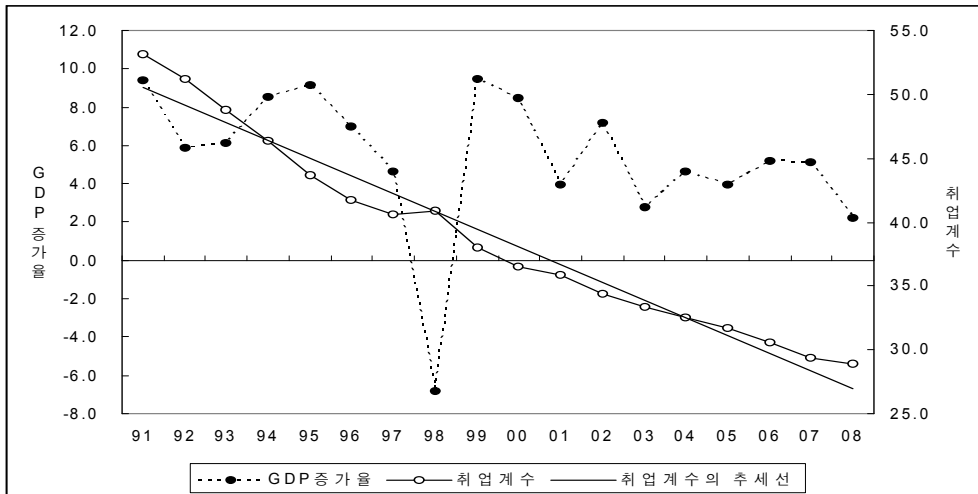
3. 취업계수는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이지만 2009년은 소폭상승 전망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이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수를 GDP로 나눈 ‘취업계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6]은 1990년 이후 GDP증가율과 취업계수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보면 취업계수는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유례없던 취업자 감소가 일어난 1998년과 2003년 취업계수 변화모습이 상이한 점이다. 1998년의 취업계수는 예외적으로 전년보다 높아진 반면, 2003년에는 전년과 대비하여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기업의 과잉고용(redundancy) 현상이 있기 때문에 취업계수가 일반적인 추세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민간부문의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이 고용창출의 주된 동력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동일한 부가가치 투입 대비 취업인원수를 높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업계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직접일자리 정책이 대량으로 시행된 외환위기 기간과 그렇지 않은 2003년 카드대란 기간의 취업계수 추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의 영향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2009년 고용전망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2009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청년인턴십 실시’,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연간 취업계수는 1998년과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

[그림 6] GDP증가율, 취업계수 추이

(단위: %, 취업계수)



자료: 통계청 · 한국은행.

다. 이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실시로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4. 2009년 고용은 하반기 67천 명 감소, 연간 10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09년 상반기에 악화되었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미약하지만 양(+)의 증가율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노동시장은 상반기보다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시장의 회복정도와 회복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고용이 증가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기에서 회복국면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고용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업자가 증가세로 반전되기까지는 시간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앞 장의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분석에서 보듯이 200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상용직의 증가세 유지, 임시·일용직 및 자영자의 감소세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임시·일용직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만큼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들의 고용확대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임시·일용직이 감소추세에 놓여 있고, 경기회복과 더불어 동포의 노동시장 유입 등 외국인 근로자와의 일자리 경쟁가능성 등으로 임시·일용직의 빠른

회복세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영향이다. 상반기에 이어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규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6월의 고용동향에서 보듯이 직접일자리 정책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상황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턴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상당수가 대략 10~11월 중에 종료할 예정이어서 이들 사업에 참여했던 인력 중 일부가 비취업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턴십과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가 각각 청년층과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하반기 고용증가폭은 3/4분기와 4/4분기에 감소세는 유지하지만 감소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하반기 노동시장을 전망한 결과를 보면 취업자는 약 67천 명 감소한 -0.3%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동참가율 61.3%, 고용률 58.8%, 실업자수 998천 명, 실업률 4.1%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9년 연간 노동시장 전망치는 연간 경제성장률 -1.6% 하에서 취업자가 104천 명 감소하여 -0.4%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참가율 61.0%, 고용률 58.6%, 실업자수 962천 명, 실업률 3.9%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 결과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망한 것으로 만약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없었다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사정은 부진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반기 취업자 감소를 연령별, 종사상지위별로 전망하면 상반기의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집중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희망근로사업 등의 주축연령인 중고령자 층에서는 소폭 증가할

<표 15> 2009년 수정 고용전망

(단위: 천 명, %)

	2008			2009p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p	상반기	하반기p
경제성장률	2.5	5.3	0.2	-1.6	-3.4	0.2
생산가능인구	39,598	39,484	39,712	40,076	39,964	40,188
경제활동인구	24,347	24,245	24,448	24,436	24,246	24,625
경제활동참가율	61.5	61.4	61.6	61.0	60.7	61.3
취업자	23,578	23,461	23,694	23,436	23,321	23,627
(증가율)	0.6	0.8	0.4	-0.4	-0.6	-0.3
(증감수)	145	192	98	-104	-141	-67
실업자수	769	784	754	962	926	998
실업률	3.2	3.2	3.1	3.9	3.8	4.1
고용률	59.5	59.4	59.7	58.6	58.4	58.8

주: p는 전망치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사상 지위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으로 일용직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임시직과 상용직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힘입어 상반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일자리 유지, 신규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자리 변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층, 30~40대 임시·일용근로자, 여성 자영자 계층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부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KLI**

<부표 1> 산업대분류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23,270 (277)	23,461 (191)	23,321 (-140)
농업·임업 및 어업	1,672 (-47)	1,613 (-59)	1,608 (-5)
광업	16 (-1)	23 (7)	22 (-1)
제조업	4,029 (-46)	4,003 (-26)	3,846 (-15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87 (16)	93 (6)	98 (5)
건설업	1,851 (39)	1,817 (-34)	1,739 (-78)
서비스업	15,615 (315)	15,912 (297)	16,008 (96)
도매 및 소매업	3,679 (-49)	3,647 (-31)	3,602 (-45)
운수업	1,240 (67)	1,254 (14)	1,239 (-15)
숙박 및 음식점업	2,047 (-11)	2,039 (-7)	1,959 (-8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26 (-32)	636 (10)	643 (7)
금융 및 보험업	792 (6)	823 (32)	764 (-59)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7 (-1)	483 (-24)	500 (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9 (36)	730 (21)	824 (9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20 (136)	955 (36)	933 (-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86 (-19)	843 (57)	931 (88)
교육서비스업	1,726 (58)	1,771 (45)	1,803 (3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15 (49)	810 (94)	956 (14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4 (-10)	395 (30)	407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277 (75)	1,290 (13)	1,212 (-7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57 (21)	156 (-1)	149 (-7)
국제 및 외국기관	15 (-7)	16 (1)	13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58 (-4)	64 (6)	73 (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2> 상용직 일자리의 산업대분류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8,469 (363)	8,910 (441)	9,225 (316)
농업·임업 및 어업	14 (-2)	19 (6)	16 (-3)
광업	11 (1)	19 (7)	15 (-3)
제조업	2,363 (58)	2,365 (2)	2,393 (2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76 (15)	85 (10)	93 (8)
건설업	426 (33)	495 (69)	522 (27)
서비스업	5,579 (258)	5,926 (347)	6,186 (259)
도매 및 소매업	715 (42)	779 (64)	785 (6)
운수업	455 (7)	463 (8)	474 (11)
숙박 및 음식점업	120 (19)	128 (8)	130 (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73 (3)	483 (10)	493 (10)
금융 및 보험업	439 (-12)	469 (30)	469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5 (-6)	122 (-13)	143 (2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8 (48)	511 (33)	604 (9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18 (82)	445 (26)	474 (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9 (-18)	676 (58)	674 (-2)
교육서비스업	831 (8)	879 (49)	901 (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95 (51)	559 (64)	620 (6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 (18)	95 (3)	95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57 (22)	264 (7)	266 (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0 (0)	0 (-0)
국제 및 외국기관	14 (-6)	16 (2)	12 (-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39 (0)	38 (-2)	46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3>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전 체	28.4	27.3	26.8	35.3	34.0	34.5
농업·임업 및 어업	67.9	63.1	58.6	137.8	125.9	125.4
광업	8.0	8.9	11.9	15.8	23.1	22.1
제조업	17.6	16.2	15.5	33.9	31.0	33.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1	4.5	4.5	8.8	8.8	8.8
건설업	30.3	29.8	29.9	65.8	64.9	61.6
서비스업	32.2	31.4	31.1	63.8	62.6	63.0
도매 및 소매업	55.3	52.0	50.6	-	-	-
숙박 및 음식점업	109.3	104.3	103.4	64.9	62.5	63.1
운수업	32.2	31.9	30.8	64.2	61.6	65.2
금융 및 보험업	14.1	13.1	12.8	26.6	26.0	23.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7	7.7	7.4	15.6	14.6	15.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0	16.0	15.4	33.3	32.1	32.3
사업서비스업	37.8	39.6	40.4	84.0	83.4	9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9	15.3	15.8	30.2	31.6	33.8
교육서비스업	35.1	34.8	34.9	71.5	71.5	7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4	22.5	24.3	43.6	46.7	51.6
기타서비스	66.9	65.6	65.7	131.5	130.3	127.5

주 : 1) 취업계수는 취업자수를 불변GDP(10억)로 나눈 값으로 취업자수는 해당 기간의 평균값인데 비해 GDP는 누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의 취업계수는 차이가 남.

2) 사업서비스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을 포함하며, 기타 서비스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E),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등을 포함함.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2009년 2/4분기 GDP가 개별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상반기 GDP 수치는 두 산업의 합계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